

2024.12.09.(월) 증권사리포트

제테마

국내 특신 허가 획득, 이제 주목해야 할 때

[출처] 유안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

특신 허가로 본격적인 성장 발판 마련

2024년 12월 5일, 제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틀리눔 특신 제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허가는 특신 사업이 수익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균주 특허 분쟁에서 자유로운 국내 유일의 특신 기업이다. 2017년 영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균주 상업화 권리를 도입한 이후, 자체 공정 기술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균주 로열티는 매출액의 5% 이하로 추정된다.

국내 허가를 기점으로 2025년 특신 추가 매출은 최소 내수 20억원, 수출 50억원이 예상된다. 향후 이미 체결된 약 9,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①튀르키예 시장에서 1Q25 품목허가, 2Q25 출시 목표로 파트너사(5대 제약사 벌크社)와 5년간 80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②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에 출시 목표로 화동에스테틱과 10년간 6,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③미국에서도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2025년 임상 3상 진입이 예상된다. ④브라질 시장에는 2025년에 품목허가 신청, 2026년에 출시한다는 목표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체(스킨스토어社)와 10년간 1,400억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진출도 기대된다.

2025년 필러·특신 수출 동반 성장

2025년에는 필러, 특신의 수출 확대가 외형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필러는 1H25 중국 시장 진출과 브라질 ODM 제품 추가 허가가 기대된다. 특신도 1Q25 튀르키예 시장을 시작으로 신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2025년 예상 매출액 850억원(YoY +24.6%), 영업이익 110억원(YoY +66.8%, OPM 12.9%)으로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460	587	682	850
영업이익	40	53	66	110
지배순이익	20	160	41	80
PER	145.1	22.0	88.1	45.0
PBR	5.0	4.8	4.6	4.2
EV/EBITDA	41.5	33.7	32.6	25.4
ROE	3.5	24.4	5.4	9.7

자료: 유안타증권

오리지널 균주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경쟁력 보유

오리지널 균주 보유



유럽공인기관 →

오리지널 균주 라이선스 계약 체결
(Type A, B, E 균주 분양) >> 미용/치료용 시장 포트폴리오 확장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

자체 개발한
특허공정
(고수율, Non animal,
Non allergen)

cGMP
생산공장 및
경험인력

*FDA, EU 기준
알부민 및 자재
사용

*CSL 사, SHOTT 사, WEST 사

차별화된 생산공정

구분	동결건조	감압건조	특수 감압건조
기업	대부분의 보툴리눔 독신 제조회사		
소요 시간	18~28시간	5시간	2시간
특징	독소 단백질 조직 파괴로 효능 저하	독소 단백질 파괴 적어 효능 확보	건조시간 단축, 독소단백질 변성 최소화

1일 1batch
생산 공정으로
글로벌 No.1
제조경쟁력

원제품의
생산성 극대화

원가 경쟁력
확보

자료: 제테마,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스튜디오드래곤

다가오는 희망

[출처] NH투자증권 이화정 애널리스트

골고루 좋아진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62,000원으로 업종 내 Top-pick 관점 유지함

P(수익성): 텐트폴(캡티브 3개+OTT 4개)과 일반 드라마(저예산 고마진)를 믹스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 강화 및 분기 실적 안정화를 꾀하고 있음. 2025년에는 최소 8편의 작품의 글로벌OTT 선판매가 담보되어 있는 상황

Q(판매량): 캡티브 채널의 수목 드라마 슬롯 재개(2H25~), 글로벌OTT 오리지널 납품 확대로 연간 판매 작품 수 고성장(18편→25편(E); +36%y-y) 기대

C(제작비): 정산 시스템 개선, AI 활용 제작 및 배우 기용 다양화를 통한 인건비 현실화를 통해 제작비를 기존 대비 10~ 15% 효율화 할 계획

중국: 수출 재개 시 업사이드 풍부. 구작 라이브러리 판매가 선행된 후 신작 동시방영이 재개될 수 있을 것. 다만 온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4Q24 Preview: 부족한 방영회차

4분기 연결 매출액 894억원(-45% y-y), 영업이익 45억원(흑자전환 y-y)으로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것.

'정년이' 흥행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방영회차 영향

4분기 신작 방영회차는 43회(-39% y-y)에 그침. 주요 신작은 캡티브向 '정년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티빙 오리지널 '좋거나 나쁜 동재', ENA '나의 해리에게' 등. 다만 오는 1분기 캡티브向 텐트폴 '별들에게 물어봐', 넷플릭스 오리지널 '탄금' 등 기대작들 포진. 방영회차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 기대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753.1	508.9	546.4	626.3
증감률	7.9	-32.4	7.4	14.6
영업이익	55.9	35.6	50.6	66.1
증감률	-14.3	-36.3	42.2	30.6
영업이익률	7.4	7.0	9.3	10.5
(지배지분)순이익	30.1	27.5	39.8	52.1
EPS	1,000.8	914.2	1,322.9	1,732.5
증감률	-40.6	-8.7	44.7	31.0
PER	51.5	51.5	35.6	27.2
PBR	2.2	1.9	1.8	1.7
EV/EBITDA	6.4	8.3	7.6	6.3
ROE	4.4	3.8	5.3	6.5
부채비율	54.3	50.9	43.5	37.7
순차입금	11.6	66.6	83.2	56.5

단위: 십억원, %, 원, 배



화신
 배터리팩 케이스는 시작, 미국과 인도는 내년 하반기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3분기 실적 부진. 4분기에도 수익성은 낮겠지만, 개선은 될 것

화신의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6%/71% (YoY) 감소한 4,186억원/63억원(영업이익률 1.5%, -3.5%p (YoY))을 기록했다. 한국 매출액이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5% (YoY) 증가했지만, 인도/미국/중국/브라질 매출액이 고객사 생산 둔화와 환율 등으로 각각 6%/1%/50%/10% (YoY) 감소하면서 전체 외형이 축소되었다. 외형 축소에도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3.5%p (YoY) 하락한 1.5%, 영업외 이자비용과 외화환산손실 등으로 세전이익/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은 3분기 및 전년 4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1%/78% (YoY) 증가한 4,425억원/111억원(영업이익률 2.5%, +1.1%p (YoY))으로 예상한다. 배터리팩 케이스 매출액이 고객사 생산물량 확대에 증가하고, 환율 상승으로 해외 법인들의 실적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반면, 외형 증가율이 낮고 추가 고정비 부담도 있어 영업이익률은 2.5%로 낮은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은 2024년 3분기. 미국 조지아 공장은 2025년 하반기 가동

총 800억원을 투자한 경북 영천의 배터리팩 케이스(BPC) 및 자동차 샤시 공장은 7월부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모델용 납품을 시작했다. 3분기에는 캐스퍼EV 모델용으로 86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했다(평균단가 86.2만원). 최근 내수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예상보다 속도는 더디지만, 고객사의 생산이 늘고 2025년 EV4 등 추가 모델들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순차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 화신은 2026년 이후 연간 1,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공장(화신조지아)은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고객으로 주력 제품인 Member/Arm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에 총 2,000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 상반기 완공된 후 시범 가동을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화신조지아의 자산총액은 1분기 162억원, 2분기 548억원, 3분기 856억원으로 증가했다. 인도 푸네에서도 2025년 하반기에 임대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공장 가동을 통한 기여도가 높아질 때 실적 및 주가의 모멘텀도 회복

주가가 하락했지만, 하반기 실적도 하회하면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P/E 5배 후반, P/B 0.5배 초반의 Valuation을 보이고 있다. 단일 고객군에 대한 의존도 및 고정비 부담이 큰 비용 구조로 인해 고객들의 생산 둔화는 기존 사업의 성장을 둔화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로 인한 믹스 효과가 있고, 한국 영천 및 미국 조지아의 신규 공장들이 완공되어 매출 기여가 시작된다는 점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공장 모두 초기 투자금액과 고정비 부담이 있는 공장들이라 가동률 상승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익성이 높아지기까지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본격적인 기여가 2025년 중반 이후로 예상되는바 관련 속도에 맞춰 실적/주가 모멘텀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086	1,237	1,690	1,803
영업이익	(11)	24	87	84
세전이익	(59)	32	95	85
순이익	(54)	24	74	77
EPS	(1,553)	698	2,125	2,213
증감율	적전	흑전	204.4	4.1
PER	(2.2)	11.9	3.4	6.2
PBR	0.5	1.0	0.7	1.1
EV/EBITDA	8.9	7.5	3.8	5.1
ROE	(21.2)	8.5	20.8	17.4
BPS	7,442	8,381	10,340	12,756
DPS	50	70	100	150

도표 2. 화신의 주요 생산 제품들

[개발 신제품]

AL Front Cross Member



- ▶ 전기자동차의 경량 서스펜션 부품. 경량화를 통한 주행거리 향상. 전기모터, 조향장치, 현가장치 지지. 노면 진동/충격 감쇄를 통한 승차감 향상.

Battery Pack Case



-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팩 케이스 부품. 에너지 공급원인 셀 모듈을 수납. 외부의 다양한 주행 환경 및 화재, 폭발에 대한 내부 시스템 및 운전자 보호.

[기존 제품]

FRONT CROSS MEMBER



- ▶ 엔진을 지지하며, 차축과 차체를 연결. Arm류, Steering Gear box, Stabilizer Bar. 노면이나 파워트레인으로부터 진동 흡수 및 소음 차단.

REAR ARM



- ▶ 주행 중 타이어를 통해 들어오는 전후력, 횡력, 상하력 지지 및 이상 거동 방지. Cross Member와 Knuckle에서 발생 되는 진동을 흡수 또는 완화.

자료: 화신



롯데정밀화학

업황 부진 속 차별화된 실적 예상

[출처] 신한투자증권 이진명 애널리스트

25년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에 주목

4분기 견조한 실적 이후 25년 펀더멘탈 회복 기대되며 이익 모멘텀 점차 확대될 전망. 케미칼은 ECH 스프레드 회복(글리세린 상승)에 따른 적자 축소 및 가성소다 高 수익성 지속으로 매분기 증익 예상. 그린소재는 고부가 식의약품 증설 및 산업용 수요 회복으로 외형 및 이익 성장 전망

4Q24 Preview: 케미칼 흑자전환 및 견조한 그린소재로 컨센 상회 전망

4Q24 영업이익 246억원(+139%, 이하 QoQ)으로 컨센서스 217억원 상회 전망. 케미칼(ECH, 가성소다, 암모니아) 부문은 흑자전환 예상. ECH는 글리세린 강세(+9%)에 따른 국제가 상승(+14%)으로 평가 인상 이뤄지며 적자폭 축소. 가성소다는 타이트한 공급으로 가격 강세(+11%) 이어지는 가운데 고수익성 지속. 암모니아 부문은 수요 회복, 평가 상승 그리고 유록스(요소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증익 예상. 그린소재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454억원(+3%), 210억원(+20%) 전망. 식의약품은 3분기 일시적 부진 이후 판매량 회복 기대되는 가운데 산업용은 견조한 수요(페인트향) 지속. 특히 급등했던 해상운임 하락과 우호적인 환율(수출 비중 90% ↑)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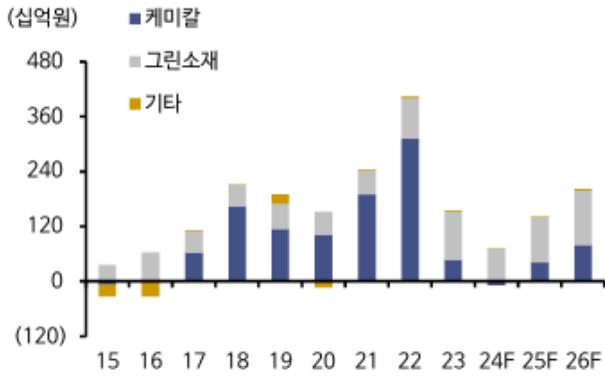
Valuation & Risk: 그룹 재무 리스크로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하락

목표주가는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목표 PBR 변경을 반영해 54,000원(-10%)으로 하향. 그룹 유동성 리스크 부각 이후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 다만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낮은 자금지원 가능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오히려 케미칼 실적 개선 및 그린소재(글로벌 탐티어) 고수익성으로 주가 재평가 기대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2	2,463.8	404.3	146.2	10.0	6.5	0.6	1.5	6.2
2023	1,768.6	154.8	182.0	8.2	7.8	0.6	2.6	3.4
2024F	1,699.9	62.8	115.7	7.7	4.8	0.4	0.3	5.8
2025F	1,802.8	141.4	223.9	4.0	8.8	0.3	-	5.8
2026F	1,897.3	201.4	248.7	3.6	9.1	0.3	-	5.8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사업부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추정

ECH 가격 및 스프레드(프로필렌 대비)



자료: Cischem, Platts, 신한투자증권





LG에너지솔루션

GM 3공장 불확실성 해소 및 효율화. GM/Honda 판매 호조

[출처] 현대차증권 강동진 애널리스트

투자포인트 및 결론

LG에너지솔루션은 GM으로부터 3공장 지분 매입을 통해 100% 보유 논의 중

GM 3공장은 건물 건설 후 중단. 다수의 언론은 Toyota향 배터리 공급 언급. 공장 규모 감안시 복수 고객사 가능성 있음. 일정에 따라, '26년 전망치 상향 가능성 있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정책 불확실성에 선행해 전기차 판매 호조. 11월 GM/Honda 판매 호조. 이러한 기조는 1Q25까지 이어져 재고 우려 점차 완화될 것

주요이슈 및 실적전망

언론에 따르면, 최근 동사는 GM으로부터 3공장 지분 매입 통해 100% 보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GM의 공급사 다변화 전략 및 EV 전환 속도 조절 등의 영향으로 해석됨.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투자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전방 OEM들의 비용 절감 노력, 수요 불확실성 등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있음

다만,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GM 3공장은 Toyota향 배터리 양산 가능성이 높음. Capa 감안시 복수 고객사 가능성도 있음. 양산시 '26년초가 될 가능성이 높음. GM 3공장 가동 시점 불확실성 감안시 '26년 전망치 상향 여지 있음

JV 형태는 장점이 있지만, 고객사 부진 또는 전략 변화시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 역시 있음.

AMPC 공유 여부도 불확실. 단독 공장이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

GM/혼다 미국 EV 판매 호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불확실성으로 그 전에 적극적인 판매 이루어질 것. 이는 1Q25까지 이어질 것. 특히, Honda 판매가 매우 강세인 점과 안전 재고 2개월 등을 감안시 LGES가 수취한 AMPC 대비 판매량 부진에 따른 재고 해소가 점차 이루어질 것. 캐나다 등 미국 외 지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어 월간 글로벌 판매 3만대 이상이면 재고 축소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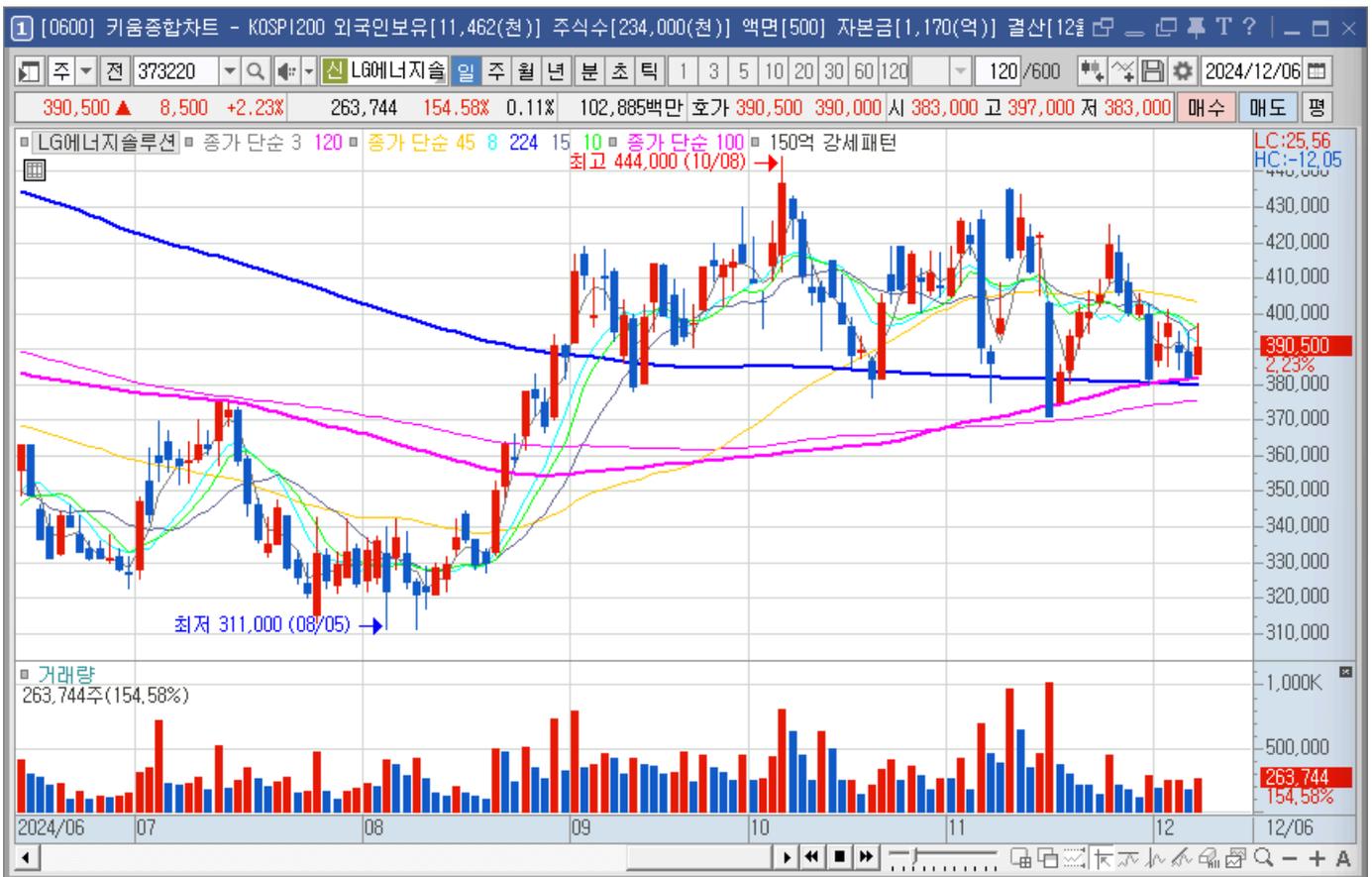
주가전망 및 Valuation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상황. 중장기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요약 실적 및 Valuation

구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BITDA (십억원)	EPS (원)	증감율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25,599	1,214	767	3,056	3,305	-16.6	131.8	5.4	34.6	5.7	0.0
2023	33,745	2,163	1,237	4,450	5,287	60.0	80.9	5.0	24.7	6.4	0.0
2024F	25,779	667	-523	3,804	-2,234	적전	NA	4.3	27.2	NA	0.0
2025F	27,802	3,272	1,449	7,320	6,194	흑전	61.7	4.1	14.5	6.8	0.0
2026F	39,380	6,307	3,058	10,989	13,068	111.0	29.2	3.6	9.7	13.0	0.0

* K-IFRS 연결 기준



호성중공업

중공업부문 기여도 높아지며 실적 우상향 전망

[출처] BNK투자증권 이상현 애널리스트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기대

최근 3분기 연결실적은 매출액 1조1,452억원(+10% yoy), 영업이익 1,114억원(+18% yoy), 영업이익률 9.7%(+0.6%p yoy)를 기록했다. 건설부문은 부진했으나 전력기기 등 중공업부문이 실적 호조세를 주도했다. 부문별로는 중공업부문에서 매출액 7,119억원(+20% yoy), 영업이익 990억원(+36% yoy), 영업이익률 13.9%(+1.6%p yoy)를 기록했고, 건설부문에서 매출액 4,333억원(-3% yoy), 영업이익 124억원(-43% yoy), 영업이익률 2.9%(-2.0%p yoy)를 기록했다. 4분기는 매출액 1조4,217억원(+10% yoy), 영업이익 1,056억원(+68% yoy), 영업이익률 7.5%(+2.6%p yoy) 수준으로 전망한다. 계절적으로 비용반영이 있을 수 있으나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미국매출 비중 상승, 해외법인의 미드틴 수준 영업이익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동기비로는 높은 이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5년에도 중공업 기여도 높아지며 이익률 향상 이어질 전망

'25년 실적은 매출액 5조2,676억원(+11% yoy), 영업이익 4,527억원(+34% yoy), 영업이익률 8.6%(+1.5%p yoy) 수준으로 전망한다. 전력기기 수주잔고 증가로 중공업부문의 매출비중('23~25년 60%/63%/67%)과 이익기여도(영업이익비중 68%/87%/88%)가 높아지며 수익성 향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40,000원

효성중공업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540,000원으로 상향한다(기존 4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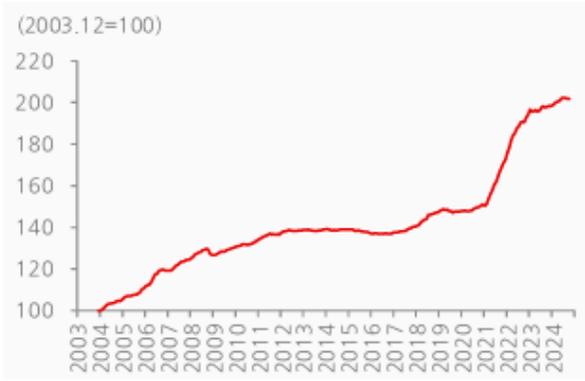
12M Fwd BPS 기준 목표 PBR 3.25배를 적용했다. 목표주가의 Implied PER는 16.7배 수준이다.

Fig. 1: 효성중공업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3,510	4,301	4,745	5,268	5,854
영업이익	143	258	337	453	568
세전이익	60	170	249	394	518
순이익[지배]	10	116	202	302	396
EPS(원)	1,096	12,438	21,648	32,366	42,514
증감률(%)	-82.3	1034.9	74.0	49.5	31.4
PER(배)	71.2	13.0	19.8	13.3	10.1
PBR	0.7	1.4	3.1	2.6	2.1
EV/EBITDA	9.9	7.7	12.0	8.9	6.8
ROE(%)	1.1	11.3	17.1	21.3	23.1
배당수익률	0.0	1.5	0.9	1.6	2.4

자료: 효성중공업, BNK투자증권 / 주:K-IFRS 연결

Fig. 2: 미국 전력기기 PPI



자료: BLS, BNK투자증권

Fig. 3: 효성중공업 매출액과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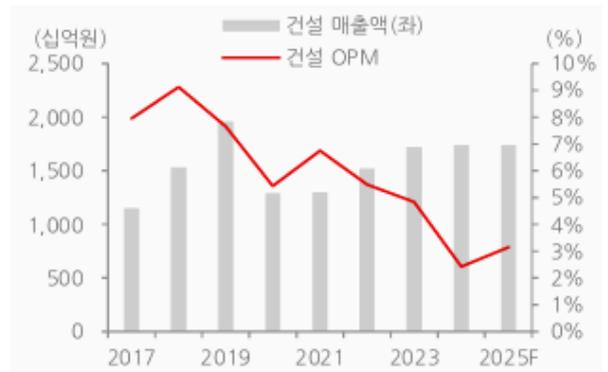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4: 효성중공업 중공업부문 매출액과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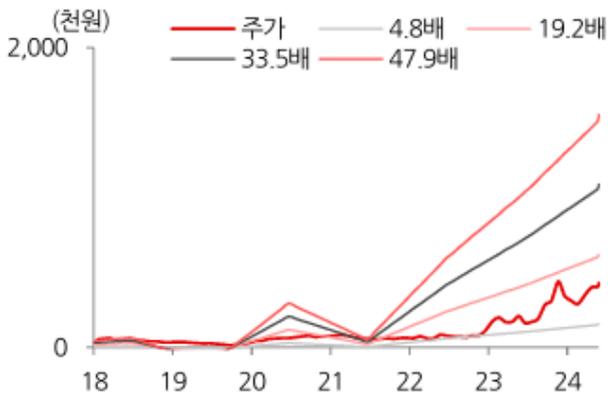
자료: BLS, BNK투자증권

Fig. 5: 효성중공업 건설부문 매출액과 O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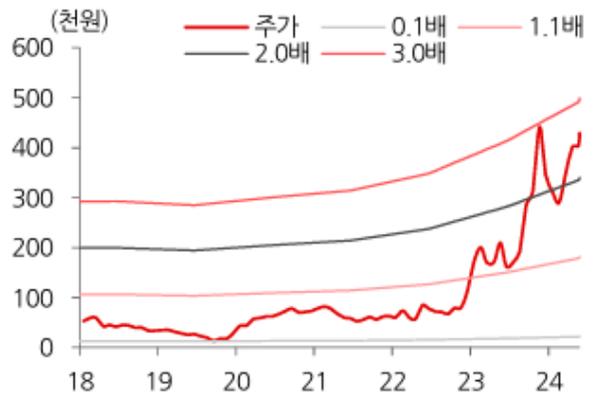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6: 효성중공업 PER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7: 효성중공업 PBR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중국 진출 전 주가

[출처] 유진투자증권 이해니 애널리스트

당사의 중국 오프라인 매장 출점은 올해 10개 초반으로 마무리 될 것. 매장 출점 둔화는 중국 경기 부진 여파 추정

내년 중국 매장 출점 목표 100개 유지(중소형 매장 포함).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까지 확대할 것

안타스포츠는 중국 스포츠 트렌드를 러닝, 요가, 야외활동(골프, 테니스 등)으로 전망. 젝시믹스에 유리한 전방 상황 조성

4Q24E 매출액 795억원(+23.3%, 이하 yoy), 영업이익 62억원(+46.3%) 전망

1) 고단가 제품 비중 확대, 2) 블프 행사 효과, 3) 2분기 호실적 견인한 골프 카테고리가 가을 골프 수요와 함께 두드러질 것

2024E 매출액 2,773억원(+20.1%, 이하 yoy), 영업이익 268억원(+45.8%) 전망

과리울 축소를 위해 목표주가를 10,000원으로 하향, '매수 의견'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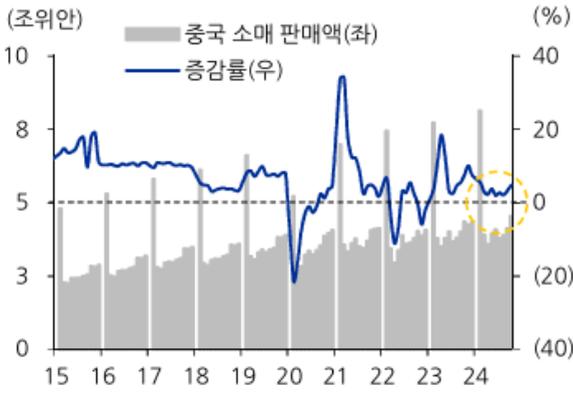
현재 주가 PER은 12MF FWD EPS 기준 5.4배, 해외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국내 내수 의류 평균 수준

최근 내부의 여러 이슈와 외부 변수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은 당사의 실적과 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

12월 결산(십억원)	2022A	2023A	2024E	2025E
매출액	207	233	277	308
영업이익	19	18	27	37
세전손익	18	16	27	37
당기순이익	10	12	19	30
EPS(원)	344	384	655	1,011
증감률(%)	31.7	11.7	70.6	54.4
PER(배)	13.9	16.5	8.4	5.4
ROE(%)	13.7	13.5	19.2	23.8
PBR(배)	1.8	2.1	1.4	1.2
EV/EBITDA(배)	5.0	6.9	4.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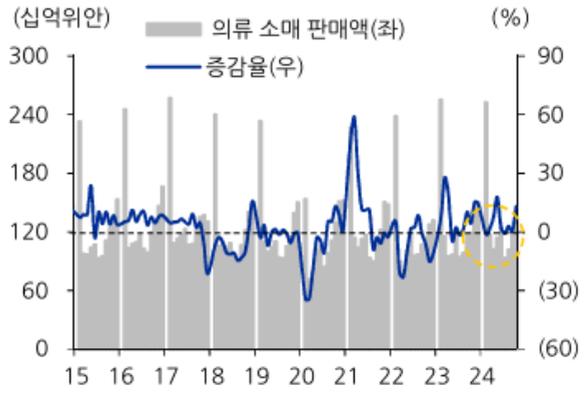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 중국 소매 판매액 추이 및 증감율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중국 의류 소매 판매액 추이 및 증감율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중국 가처분소득, 가계지출 증감률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4. 중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